



김정명씨가 지난해 3월 초 소백산 꼭대기에서 찍은 잔설을 뚫고 핀 모데미풀(달력 2월 둘째 주·위부터 시계방향), 모데미는 무덤가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동강 할미꽃(4월 첫 주)과 백두산 천지의 거친 바위 위에 핀 돌꽃(8월 둘째 주), 꽃 모양이 가지 끝에 모여 앉은 새를 닮은 진범(10월 셋째 주) 등 내년 달력에 담긴 사진들. /사진제공=김정명

찰칵! 이름없던 꽃 생명을 얻다

한국 야생화로 16번째 사진집 낸 김정명씨

펼치면 A4용지 크기의 벽걸이용 미니달력, 표지엔 ‘한국의 야생화로 적혀 있다. 1994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와 올해로 16집이 됐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에 같은 표제를 달아 내놓는 이 달력을 철한 스프링도 16번째 그 모양 그대로다. 달력이 해마다, 달마다, 주마다 달라지는 건 한 주 단위의 달력 절반을 가득 채우는 꽃 사진이다. 매년 2만 이 넘는 가정에 이 달력이 걸리는 이유다. 그중 5000가구가 해외의 교포 가정이다.

◆2010년 곤충 눈에 비친 우리꽃

꽃은 사진작가 김정명(63)씨가 86년부터 찍기 시작한 우리 산하의 야생화다. 그동안 50만 장 이상을 찍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름 없는 몸짓에 불과했을 그 꽃들이 ‘한국 특산식물’(2000), ‘멸종위기식물’(2002), ‘한국의 야생난초’(2005), 같은 주제로 소개됐다.

2010년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꽃의 세계’다. 곤충의 눈에 비친 모습을 자외선 촬영으로 담았다. 흑백의 꽃 무늬는 벌과 나비를 유혹해 꿀이 많은 곳을 알려 주고 곤충은 보답으로 꽃의 수정을 도와준다. 우리 토종 꽃을 이런 식으로 찍어 소개하는 건 처음이다.

그의 사진은 죽어 있던 산하를 되살려내기도 했다. 98년 촬영한 ‘동강 할미꽃’은 그가 처음 발견해 이름을 얻었고, 87년부터 찍어 온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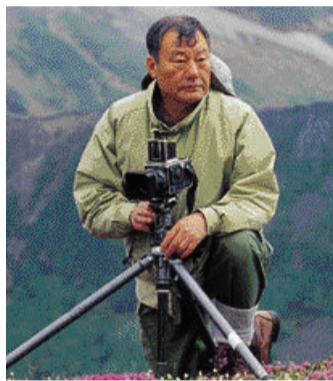
도의 풍경은 우리 땅임을 일깨웠다.

◆야생화 향에 취해 전국 누비다

김씨는 82년부터 우리 국토를 사진에 담아왔다. 86년 설악산을 찾았을 때 발 아래 고개를 내민 야생화를 촬영하다 향에 취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야생화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해 못하겠지만 야생화는 기를 뽐습니다. 7년 전 만난 영국자연사박물관 담당자는 사진만 보고 야생인지 구분하더군요.”

사실 확대된 사진에서 보는 것과 달리 야생화는 그냥 보면 작고 초라하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가를 뽑아내기 그만큼 어렵다. 1년 365일 중 200일을 촬영에 매달린 결실이기도 하다. 그의 머리엔 계절에 따라 무슨 꽃이 어디에서 언제 피는지가 빼곡하다.

“인간이 기르는 원예종과 달리 야생화는 크기도 작고 색의 화려함



사진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찾아가 봐야 감동

도 탈해요. 하지만 조물주는 공명합니다. 향은 야생화를 따라오지 못하죠. 수정하기 위해 곤충을 유혹하는 야생화는 강렬한 향을 내뿜습니다. 수정되고 나면 향은 싹 사라지지만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음미하지 말고 직접 찾아 보라 권한다. 달력의 꽃 사진이 실제 개화 시기보다 보름 정도 앞서는 이유다.

◆“계절 잊은 꽃 큰일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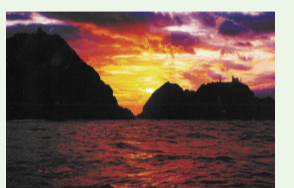
요즘 몇 년 새 김씨는 기후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계절에 맞지 않게 꽃을 띄우는 시기가 들쭉날쭉해서다. “5년 전부터 (개화시기가) 맞지 않게 피고 있어요. 옛 사람들은

꽃 보고 계절을 알고 물고기 올라올 때를 알았는데 꽃이 계절을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일이 난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레 보호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안타깝다. 한 지역에서 자생종 군락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나면 그다음 해에 가보면 사라지고 없다. 너나 없이 캐가기 때문이다. “동강 할미꽃을 집에서 키우면 20~30cm나 자라요. 동강에서 자라는 석회암 바위 틈의 할미꽃은 10cm밖에 안 돼요. 조물주의 신비를 사람이 키워 제맛이 나겠습니까.”

차츰 사라져가는 야생 꽃도 자주 눈에 밟힌다. 북한산 노랑할미꽃과 유령난은 한 달을 기다려도 보지 못하고 왔고 흔하던 개부랄난도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단다. 내년에는 토종 꽃이 물을 건너 계랑된 원예종을 주제로 달력을 만들려 한다. 해외 식물원에서 찾은 우리 땅에 없는 우리 꽃이 많다. 환갑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그는 “살아 있는 한 찍을 거고, 찍는 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내년이 또 기대된다.

/박태정기자 ptj@metrosooul.co.kr



20만~30만원 인터넷 거래

‘김정명의 우리꽃사진’이란 부제의 달력은 마니아층이 두둑하다.

유일한 판매 경로인 전화(02-765-3520)로만 해마다 2만여 권이 팔린다. 재고가 없는 1995~98년도 달력은 인터넷에서 20만~30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해 지나면 버리고 마는 달력이 아닌 하나의 작품이다. 2010년 달력도 이제 1000권밖에 남지 않았다.

미시적인 꽃 사진 말고도 달력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2002년부터 달력 첫 장을 여는 독도(사진)의 일출 사진도 그의 역작이다. 시중에 떠도는 웬만한 독도 일출 사진이 그의 작품이라 보면 될 정도다. 그 아름다움을 영화용 필름에도 담아 시상과 3사 애국가에 나오는 수려한 영상도 그의 시선에 빛지고 있다. /박태정기자

AirAsia New Caledonia

천국의 섬 뉴칼레도니아에서 추억 만들기

아이돌과 8개 여행사가 함께하는 뉴칼레도니아 **자유 여행!**

출발일 기준: **2010년 1월 18일(월) ~ 2월 27일(토)**

“139만원”

Bonaparc Paradise 뉴칼레도니아

방과후학교 사업자를 위한 정책세미나

정책 세미나 및 설명회 개요

■ **일정** ● 1부: 방과후학교 정책 세미나 ● 2부: 지부 및 지원센터 개설 설명회

■ **대상** ● 각 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 시도/지역 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 지부 및 지원센터 개설 희망자 ● 방과후학교 사업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

차	지역(차별)	일정	장소
1차		2009년 12월 29일(화) 14시 ~ 17시	(주)한국교육서비스센터 교과당
2차	서울 / 경기	2010년 1월 27일(목) 14시 ~ 17시	(교육지원청) 코엑스 3층 307호 세미나실
3차		2010년 2월 24일(수) 14시 ~ 17시	한국방과후학교사련협회 대회의실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1월 20일(수) ~ 1월 22일(금) 코엑스 2층 207호

■ **신청 방법**

● **지원접수**: 2009년 12월 22일(화)부터 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교육지원청] 공지사항

● **참여서류**: 지부 및 지원센터 개설 우선권 및 우선 채용 추천서 [지부 / 센터 교사 제출 시]

■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88-9114) 및 연합회 홈페이지(www.kjas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과후학교교사련협회
한국방과후학교교사련협회
KJASTA Korea After School Teacher Association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7번지 한국방과후학교사련협회 본회 본부 담당자
● Tel. 02-688-9114 ● Fax. 02-6857-9114 ● E-mail: info@kjasta.or.kr
● 본 연회회의 해에 할 전국 지원센터와 우수한 방과후 교원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